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 플러스

부르심을 넘어 - 이혜선 목사

신앙의 유산

기쁨의 봉사과 사랑하는 영은교회 - 이택원 은퇴장로

구역식탁

시련속에서 붙잡은 신앙 - 배정섭 집사



www.youngeun.or.kr

9 600424 840427

PASSION
영은, 열정을 더하다
2026 BASIC+

“다운로드에 실패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다운로드에 실패한 경험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과 은혜를 다운로드 받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실패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21)



영은 집수리 봉사단

월간 동행 영은 영상홍보부

창간일 1986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7월 5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민욱

윤정림 이숙경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김경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 『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와 YES 앱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 다운로드에 실패했습니다 서현이 집사

04 **생명의 말씀** |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 이승구 목사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주님이 준비하신 '돌아온 길' 삼규석 집사

10 **동행플러스** | 부르심을 넘어, 역사가 되다 이혜선 목사

13 **구역식탁** | 시련 속에서 붙잡은 신앙 배정섭 집사

15 **신앙의 유산** | 기쁨의 봉사와 사랑하는 영은교회 이택원 은퇴장로

18 **소식&나눔** | 제 68기 전도폭발훈련 수료식 김재원 집사

| 2026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 조현진 집사 외 6명

| 찬양의 향기로 예배당을 채우다 장호선 안수집사 외 2명

| 이준희 담임목사 취임예식 김택원 안수집사

| 중등부 워십팀 키리에, 대상 수상 송희원 학생

| 토요학교 영은로이 수영반 대회 수상 윤홍식 안수집사 외

| 재능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고친다 임성희 성도 외

30 **청년마당** | 유스비전 31기 '주바라기' 파송예배 김혜지 청년

31 **선교현장 속으로** |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이우진·서보경 선교사

33 **슬기로운 교회생활** | 복음의 문을 여는 전도 길잡이 김민식 목사

34 **생활노트** | 그리스도의 투자 지혜 장호선 안수집사

36 **뒷표지** |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
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 [신 24:19-22]



이승구 담임목사

오늘 말씀은 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의 돌봄이 얼마나 세밀하고 고차원적이며 아름
다운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
시키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끝
까지 존중하는 돌봄입니다.

1.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은 존엄성을 지켜 줍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
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 24:19)

하나님께서서는 “씨뿌리는 추수를 하지 말고, 밭모
퉁이를 조금 남겨 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법은 참 미련하고 비효
율적입니다. 내 땅에서, 내 땀과 노력으로 키워
낸 작물이니, 남은 것이 있다면 샅샅이 뒤져서
내 창고에 단 한 톨이라도 더 채워 넣는 것이 자
본의 논리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익의 극대화를 가로막으십니다.
의도적으로 너의 수확에 구멍을 내고 빈틈을 만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밭을 가진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
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도 단 한 알도 남김없
이 다 따서 창고에 넣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줄 세우고 인심 쓰듯 나누어 주어라” 만일 하나



설교 영상보기



님이 이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땅이 없는 나그네들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아침 일찍부터 길게 줄을 서야 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인이 던져 주는 동정의 쌀자루를 받아 쥐며 자존심을 굽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배고픔만 채워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존심과 존엄성' 까지 완벽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추수를 마친 후 가난한 자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땅을 흘려가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나무에 남은 열매를 따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내 땅은 없으나 하나님의 법이 보장해 준 일터에서 정당하게 노동하여 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삶의 주체' 로 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입니다.

진정한 돌봄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의 자존심과 인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생색내는 일시적인 적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구조적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돌볼 때 상대의 존엄성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다가가는 고품격 돌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은 청지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밭 주인의 입장에서 눈앞에 뻥히 보이는 곡식과 열매를 그냥 남겨두고 돌아서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얻은 결과물인데, 그것을 눈앞에서 포기하고 밭걸음을 돌리는 것은 엄청난 손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효율적인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 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피땀 흘려 잡초를 뽑았습니다. 내 손으로 농사를 지었으니 이 곡식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흘렸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면,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

대지를 적셔주지 않으셨다면, 열매는커녕 한 톨의 이삭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수확의 기쁨을 주신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밭의 모퉁이를 다 거두지 않고 일 부러 남겨 두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최고의 겸손한 신앙고백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인의 뜻대로 이 밭의 일부를 떼어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논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백이야말로 ‘거룩한 낭비’이며, 세상을 살리는 ‘돌봄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을 잠시라도 멈추고 내 삶의 모퉁이를 기꺼이 비워둘 때,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

고, 쓰러져 가던 이웃이 살아나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3.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은 확실한 동기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 24:22)

하나님의 돌봄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영적 동기는 바로 ‘기억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번듯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밑바닥에서, 채찍에 맞아가며 벽돌을 굽던 비참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었고, 내 이름으로 된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은커녕 하루치 생존마저 위협받던 나그네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고, 비참한 노예였던 그들의 손에 ‘밭의 주

인'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을 쥐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돌볼 때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생색낼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내 영혼의 비참함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저주와 비참함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

나님께로부터 먼저 과분하게 받은 '십자가의 돌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 곁에서 비틀거리는 약자를 향해 기꺼이 내 발모퉁이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바라볼 때 내 우월한 시선을 완전히 꺾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눈물로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복된 모든 발모퉁이를 기쁜 마음으로 헐어 상처 입고 굶주린 영혼들을 품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은 단순히 상대방의 필요만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존엄성까지 지켜주는 돌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고품격 돌봄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돌아온 길’



심규석 집사

제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나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신앙의 고향은 영은교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형과 어머니를 따라 처음 영은교회에 출석했고, 학생부와 청년부 시절을 보내며 신앙의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 삶 속에 계신 주님을 알고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88년, 직장의 지방 이전으로 삶의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낯선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교회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점차 신앙생활과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흐

름 속에 묻혀 살게 되었고, 영적인 갈급함마저 잊은 채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며 다시 교회와 연결되려고 시도하였지만, 세상의 유혹과 제 나태함으로 인해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다시 시작해 보려 했으나 생각에만 머물렀을 뿐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다시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교회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가까워졌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던 흡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돌이켜 세우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초, 예전에 교회를 함께 다녔던 후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

식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영목 집사님(현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실로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긴 세월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교회에 다시 정착한 이후 서영목 장로님의 권유로 식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성도님들을 섬기며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중과 주말 그리고 주일 새벽부터 묵묵히 헌신하시는 권사님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에 비하면 제 섬김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자로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의 배식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많은 성도님께 따뜻한 식사를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와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름다운 교제와 질서를 위해 배식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습니다. 멀리 떠나 방황하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돌아올 길을 준비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한, 식당 봉사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점심, 교회 식당 봉사

부르심을 넘어, 역사가 되다

여성안수 30년, 동역의 리더십으로 교회의 미래를 열다



이혜선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여동문회 임원)

2026년은 여성안수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히 지나온 3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랜 세월 교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기도와 인내, 순종이 오늘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여성안수 역사

한국교회의 여성안수 역사는 오랜 기다림의 역사였다. 1933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함흥교회 여전도회원 104명이 총회에 여장로 제도를 청원하면서 작은 물결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신앙고백이었다. 1953년 여전도회 대표들이 발표한 「여자의 인격 선언」은 이러한 흐름에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창세기 1장 27절과 장로교 신조를 근거

로 여성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갈 동역자임을 선언한 이 문서는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후 여성안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1971년 총회는 여장로 제도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식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1977년에는 여목사 제도 신설을 청원하였다. 수차례의 논의와 보류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1994년 여성안수가 허락되었고, 1995년 마침내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사명은 이미 시작됐었다. 여성들은 교회학교와 선교지, 심방과 교육, 상담과 돌봄의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오래 교회를 섬겨 왔다. 직분은 늦게 허락되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고, 제도는 더디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지난 30

년은 수많은 첫걸음의 역사였다. 여성목회자와 여성장로들이 세워지고, 여성 지도자들이 노회와 총회, 선교와 교육의 현장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의 지평을 넓혀 왔다.

다는 사실은, 교회의 직분이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 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는 권한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적 리더십의 표현이었으며, 경쟁보



김창경·김섭인 장로장립식(1964).

왼쪽부터 이창호, 한득권, 김창경 장로, 박조준 담임목사, 김섭인, 김순성 장로

김창경·송리복 장로 부부

영은교회가 세운 한국 최초의 장로 부부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다. 영은교회가 최초로 부부(1964년 김창경, 2000년 송리복 장로 장립식)를 함께 장로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한 결단이다. 그 의미는 단순히 '최초'라는 기록에 있지 않다. 한 가정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였던 부부가 교회의 공적 리더십도 함께 감당하도록 세워졌

다 협력, 배제보다 동역, 권위보다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 준 귀한 신앙고백이었다. 무엇보다 그 결단을 내린 영은교회의 영적 통찰은 오래 기억될 가치가 있다. 시대가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길을 먼저 걸으며 관습보다 복음을, 익숙한 질서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본 용기는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러한 공동

체적 리더십의 모델이 한국교회 안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배들은 믿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우리는 그 길을 얼마나 넓혀 왔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오늘 세계는 여성 리더십을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는 물론 세계교회 역시 여성 지도자들이 다양한 공적 리더십을 감당하며 새로운 선교적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교회 역시 시대를 뒤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를 온전히 세우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줄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복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성안수 30년

2026년 6월, 여동문회 수련회와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수련회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여성 사역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와 세미나, 기도와 교제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함께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영적 결단의 자리였다.



장신여동문회 수련회



전국여교역자 수련회

여성안수 30년은 하나의 결실인 동시에 또 다른 출발점이다. 선배들이 믿음으로 문을 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그 문을 더욱 넓혀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걸어갈 길을 만드는 일이다. 여성과 남성, 목사와 장로가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는 교회, 다양한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교회야말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일 것이다.

부르심은 한 사람에게 임하지만, 역사는 공동체가 만든다. 3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두드린 문은 오늘 새로운 길이 되었다. 이제 그 길을 더욱 넓게 이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것이 여성안수 30년이 한국교회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의 30년을 향한 가장 거룩한 사명일 것이다.



배정섭 집사
(102구역)

시련 속에서 붙잡은 신앙

영은교회에서 시작된 믿음

1965년생 배정섭 집사는 영은교회에서 중·고 등부를 다녔다. 문래동에 살던 시절 호정순 은퇴 권사님이 배 집사의 어머니(김숙자 집사)를 전도했다. 배 집사가 중학교 때 병으로 입원했을 당시 이용남 목사님이 병원에 두 번 오셔서 기도해주셨다. 이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 집사도 어머니와 함께 영은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교회학교 선배였던 몇 명은 현재 장로가 되었다. 집사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갔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영은교회에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2014년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교회에 다니셨다. 그러다가 4년 전 코로나 시절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현재 신정동 집에서 집사님이 홀로 91살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인생에 찾아온 두 번의 큰 시련

배 집사는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와 조카딸과 함께 살았다. 남동생의 딸(배솔)이 아이였을 때 남동생 부부가 연이어 가출한 후 어린 조카의 육

아를 미혼인 큰아버지가 떠맡게 된 것이다. 솔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두통과 눈의 통증을 호소해서 한의원과 안과, 신경외과 등 병원에 데리고 다녔다. 그러다가 중1 때 고대구로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딸처럼 키운 조카가 뇌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다. 그때가 배 집사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든 시기였다. 수술 후 솔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후유증을 보였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새벽 3시에 교회에 가서 두 시간 동안 앉아서 울다 왔다. 돌아오니 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큰아빠, 어디 갔다 왔어?” 물으면서 웃었다. ‘오,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솔이가 벌써 스물아홉이 되었다. 아직도 약을 먹고는 있지만, 화장품 회사에 다닌 경험을 살려 올봄에 자신만의 공방을 차렸다. 영은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방송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솔이 수술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배 집사의 어머니가 4년 전부터 치매를 앓

게 되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전에는 고관절 골절 사고를 당하여 거동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다. 넘어진 어머니를 안고 두 시간 동안 엉엉 울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요양 보호 2등급으로 다른 이의 도움없이 활동이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배 집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 돌보는 데 쓰고 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끼고 사셨는데 지금은 청력이 더 나빠진 상태다(청각장애 2급).

시련 속의 기대

배 집사는 1997년도 아이엠에프(IMF) 때 회사를 나온 이후에 영등포기계상가에 사무실을 얻어 자영업을 시작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무실에 가끔 방문해서 기도를 드렸다. 1984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2002년까지 거의 20년간 교회를 떠나있었지만, 어렸을 때의 신앙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기에 세상 유희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17일에 고미자 권사님이 인도해서 영은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다. 시흥에 살 때, 고미자 권사님이 구역장으로 있었고, 배 집사의 어머니가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고 권사님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영은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23년도 어버이날에는 양천구청에 가서 효행상을 받았다. 요양보호사가 오전 4시간 동안 어머니를 돌보는 사이 배 집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러 다닌다. 그 외 시간은 항상 어머니 곁에서 수발한다. 배 집사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가 요양원은커녕 주간보호센터에도 나가기 꺼리시기에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느라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못해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다. 본 기자가 배 집사와 어머니를 함께 만났을 때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 봤다. 배 집사의 어머니께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배 집사의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고 집사님 본인도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배정섭 집사와 어머니

기쁨의 봉사와 사랑하는 영은교회



이택원 은퇴장로

제직회 회계로 10년간 봉사

교회의 제직회 회계는 교회의 재정, 즉 현금 통장과 자금을 관리하는 직분이며, 교인별 현금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중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제직회 총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엄격히 심의하여 회계를 선임해 왔다. 내가 교회에 등록할 당시만 해도 제직회 회계는 두분의 집사님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등록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던 나를 제직회 부회계라는 과분한 자리에 임명하셨다. 당시 나는 은행원이었지만, 교회에서의 봉사 이력이라고 고등부 교사 3년이 전부였음에도 나를 신뢰하고 중책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를 시작으로 나는 제직회 회계와 부회계로서 도합 10년간 기쁘게 봉사할 수 있었다.

관심 많던 교육부에서 13년간 봉사

평소 교육 부문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등록 이듬해

부터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다. 당시는 한국 교회 전체가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이었다. 우리 고등부 교사들 역시 당시 담당 교역자이셨던 서명호 전도사님과 함께 매월 한 번 이상 기도원을 찾았다. 교사들 몇 명만 모여도 곧장 기도원으로 달려가 철야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교사로서 매년 참석했던 고등부 여름수련회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였다. 한 학생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던 사건, 캠프파이어 앞에서 학생들이 성령에 취해 죄를 자복하며 뒹굴던 일 등 매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하곤 했다.

제직회 회계 봉사를 마친 후에는 청년부 교사로 섬기던 중 장로로 피택되었다. 장로 임직 이후에는 교육3부, 교육2부, 교육1부 부장을 거치며 10년 동안 교육부서에서 장로로 봉사했다. 평소 가장 마음이 가던 분야에서 이토록 오랜 시간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고일호 목사님 교회장과 이승구 목사님 청빙

당회 서기로 시무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내게 교회의 매우 중대한 과업들을 맡기셨다. 고일호 담임목사님의 암 발병으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당회 서기 직분을 맡게 된 것이다. 당회 서기로서 당회장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랐다. 당회 차원에서 전 성도 기도회를 주관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고, 임시 당회장님을 모시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온 힘을 쏟았다. 안타깝게도 고일호 목사님께서 별세하시며 당회 서기로서 교회장(敎會葬)을 총괄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목회자의 마지막 길이였기에, 엄숙하면서도 품격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밤낮으로 마음을 졸이며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 당회로부터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으로 위임받아,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청빙하는 중책을 주관했다. 수많은 교회가 청빙 과정에서 분란과 대립을 겪고, 청빙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만큼은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는 동시에,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후유증이 전혀 없도록 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이승구 담임목사 위임예식 (2020.10.18.)

청빙 절차는 매우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로 원서를 제출한 수많은 후보자 중 청빙위원회의 서면 심사를 통해 10명의 후보를 선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당회원 투표를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마지막 3명의 후보자를 모시고 설교를 듣고 심층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후보 1명을 당회 투표로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부의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현재 담임이신 이승구 목사님께서 이 모든 전 과정에서 당회원 전원의 찬성을 받은 유일한 후보로서, 매 단계 압도적인 1번 후보가 되신 것이다. 어떠한 사전 토의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자유투표였음에도 당회원 전원의 표가 일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기적이었다.



영등포노회장기 체육대회에서 노회남선교회연합회장으로 봉사

너무 좋은 우리 영은교회

우리 영은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평신도 훈련이 잘 된 교회라고 늘 자부한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교회 전체의 절기 예식은 물론이고 각 부서와 남녀선교회 행사, 노회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평신도들이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지침에 맞추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교회는 우리 영은교회 외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성경 읽기와 헌금 생활은 물론, 화예모, 노방전도팀, 차량안내팀 등도 목회자의 강요나 독촉 없이 성

도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어가며 기쁨으로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특히 ‘성경 만독 대행진’은 목사님께서 매주 특별히 강조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완독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교회의 기틀을 다진 창립 교인들의 헌신에 감사할 줄 알고, 연세 많으신 신앙의 선배들을 지극 정성으로 대우하며, 당회나 제직회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성숙하게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 영은교회.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큰 복이며, 영은교회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교회’라고 확신한다.



이택원 장로 가족사진

제68기 전도폭발훈련 수료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김재원 집사
(5단계 훈련생, 주일반)

지난 6월 14일 주일 오후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8기 국제전도폭발훈련 수료식이 있었다. 3월 15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12주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총 23명의 훈련생과 훈련자가 참여했다.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고 복음으로 훈련받으며 함께 기도하고 웃으며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폭발 68기 5단계를 수료했다. 처음에는 ‘마지막 단계이니 잘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이 컸지만, 지나온 훈련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계씩 마칠 수 있었다. 5단계 훈련 기간에 예상치 못한 다리 부상으로 약 3주 동안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고, 교회 사역도 잠시 쉬었다.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훈련의 자

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전도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전도는 기술이나 방법보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임을 배우게 됐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진경애 권사님과 동기들, 모든 훈련 관계자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12주의 훈련은 끝났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번 수료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 68기 국제전도폭발훈련 수료자 명단

1단계 고은정, 박귀자, 박미애, 정선영, 정현진, 조영란(6명)

2단계 권기훈, 김성주, 김정자, 김현미, 박은래, 박효숙, 윤정환, 정혜윤(8명)

3단계 임현숙(1명) 4단계 곽수현, 선혜정, 한승곤(3명) 5단계 김재원, 남상순, 이경희, 정해진, 주세훈(5명)

2026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 개설강좌

배움에 열정을 더하는 말씀요리사

개강: 3월 10일(화) | 종강: 5월 26일(화) 강의 기간 및 방식: 6~8주/현장&동영상 녹화 강의

- 큐! 함께 걷는 말씀
- 하이,요~(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 10분 묵상
- 팀 켈러와 함께하는 고전산책
- 예수동행일기
- 구약이 열리는 성경통독
- 사춘기 부모교실
- 다문화 시대,이주민 선교와 타문화 이해

교육문화부 주관으로 2026년 1학기 장년신앙교육 < 배움에 열정을 더하는 말씀요리사 >가 3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총 7개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총 361명이 수강해 360명이 수료했다. 6월 7일 주일 오후에 배 때 상반기 장년 신앙교육 수료식이 있었다. 7개 강좌 수강자들의 소감을 소개한다.

큐! 함께 걷는 말씀 | 강사: 김민식 목사



조현진 집사

영은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참여한 장년신앙교육 <큐! 함께 걷는 말씀>은 은혜롭고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목사님께서 ‘큐티(QT)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보는 것’,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6주 동안 큐티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주일을 보내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하이,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강사: 정성훈 목사



허유경 집사

목사님의 주일예배 설교와 주변 사람들의 권유, 숙제는 꼭 해야 마음이 편한 성격 탓에 장년신앙교육을 신청하게 됐다. 새가족 추천 교육이라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매일 10분 남짓한 강의를 출근 전 틈틈이 들으며 익숙함 속에 무뎠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정신없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했다. 매주 반복하듯 드리던 고백과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팀 켈러와 함께하는 고전산책 | 강사: 최광주 목사



류 정 성도

이번 수업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다시 알게 됐다. 최광주 목사님께서 책 『내가 만든 신』의 내용을 삶과 연결해 쉽게 풀어주시고, 각자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수업의 메시지가 더 깊이 와닿았다. **다른 성도들과 수업에 같이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그 안에서 공동체의 소중함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동행일기 | 강사: 박대원 목사



이진영B 성도

영적 침체에 있던 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장년신앙공부의 <예수동행일기> 강좌 광고를 들었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예수동행일기>를 신청했다.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일단 첫 모임에 나갔다. 생각과 다르게 수업은 너무 은혜로웠다. 예수동행일기를 쓰고, 서로의 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고민을 알게 됐다. **성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나의 고민 내용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매주 토요일 <예수동행일기> 수업은 내 삶에 큰 활력이 되었고, 내 영적 상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약이 열리는 성경통독 | 강사: 한진구 목사



채성애 권사

올해 성경 2독을 목표로한 터라 <구약이 열리는 성경통독>을 신청했다. 3월 11일부터 5월 5일까지 56일 동안,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매일 일곱, 여덟 장씩 통독하고, 8회의 강의를 들으며 성경의 구성 및 배경과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며, 강의를 통해 각 성경의 구성과 내용을 깊이 알게 되어 참 유의한 시간이었다.** 강좌가 끝난 후에도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는 습관이 생겨 올해 2독을 무난히 완료할 것 같아 기쁘다. 하반기 교육에는 신약통독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춘기 부모교실 | 강사: 정평진 목사



최은애 집사

<사춘기 부모교실>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성경적 지혜를 전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필(Feel)통 대화법’,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와 자녀의 시간’, ‘관계의 온도로 신앙의 씨앗 심기’ 등의 강의를 통해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었다. 사춘기 자녀와의 시간이 때로는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해야 함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문화 시대, 이주민 선교와 타문화 이해 | 강사: 현한나 교수



유선아 성도

이번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이웃들을 환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중요한 축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미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는 수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따라 이동하고 흩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곁의 이웃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에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젊음도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맡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되었다.



장호선 안수집사
(음영부 차장)

찬양의 향기로 예배당을 채우다

- 음영부 헌신예배 -

6월 21일 주일 오후,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가 본당에 가득했다. 음영부 헌신예배를 드리며, 연합찬양대와 여러 특별단체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씩 올려드리며, 감사와 헌신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헌신예배에서 음영부 담당 박대원 목사는 “성경의 눈으로 바라본 찬양대”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이자 헌신임을 강조했다. 말씀을 통해 찬양대원들은 물론 모든 성도가 찬양의 의미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예배에서는 오랜 기간 찬양으로 헌신한 대원들에 대한 근속 시상식이 있었다.

특별순서로는 여호수아찬양대가 「Praise His Holy Name」을, 엘리여성중창단이 「주님 한 분

만을 위하여」를, 살롬남성중창단이 「시편 23편」을 차례로 연주하며 각기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이 담긴 찬양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연합찬양대는 「내 주는 선한 목자」와 「시편 150편」을 힘차게 찬양하며 은혜의 절정을 이루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 울려 퍼지는 찬양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한 편의 아름다운 고백과 같았으며, 본당을 가득 채운 은혜의 감동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10년 근속상 강민조, 김수진B, 김영순A, 박선영A, 이은숙D, 임소이

20년 근속상 강미경, 권연상, 김수현A, 박윤희, 박찬숙B, 설두석, 성백신, 이정숙C, 정정순

40년 근속상 임재화

40년 공로상 구한희, 박혜숙

흔들림 없이 지내온 찬양대 40년



임재화 안수집사
(호산나찬양대)

1986년 헵시바찬양대(4부)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이었던 그날이 엿그제 같은데, 어느덧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음정은 조금 흔들렸을지 몰라도, 찬양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켜온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찬양대의 자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제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번은 주일 예배 중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시던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게 찬양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본당 찬양대석에 올라가기 전, 항상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끔 찬양곡이 어려울 때면 “음정도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합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 화음을 맞춰주신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한 40년



구한희 은퇴안수집사
(호산나찬양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산나찬양대에서 40년 동안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으로 섬겨온 모든 대원과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임재화 안수집사, 40년 근속상 시상

구한희 은퇴안수집사, 40년 공로상 시상



이준희 목사 취임예식

-호주 시드니 새벽종소리 명성교회-



김덕원 안수집사

5월 28일, 우리 영은교회 부목사였던 이준희 목사님의 시드니 새벽종소리 명성교회 담임목사 취임예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은교회 방문단은 시드니로 향했다. 이번 방문단은 교회 대표인 장미애 목사와 정재훈 장로를 비롯해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이준희 목사님이 취임하는 시드니 새벽종소리 명성교회는 1999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27주년을 맞는 역사 깊은 교회다. 현재 매 주일 청·장년 250여 명과 교회학교 학생 5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교회는 넓은 부지와 교육관, 본당을 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영적 열정이 가득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주일 예배 때 마주한 성도들의 진지한 태도와 목

사님의 힘 있는 말씀 선포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담임목사로서 한층 성숙해진 이준희 목사님과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를 보며 깊은 은혜를 받았다. 예배 후 교회 식당에서 함께 나눈 점심 식사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특히 식사 자리에 어린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서 앞으로 더욱 젊고 밝게 성장할 교회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5시, 해외한인장로회 호주노회 주관으로 이준희 목사님의 취임예식이 거행됐다. 노회장 이동일 목사님의 말씀과 시드니 우리교회 원로목사이신 홍길복 목사님의 권면은 큰 감동을 주었다. 평생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겨야 한다는 진심 어린 조언은 후배 목사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

이준희 목사님은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섬김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지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대해 준 시드니 새벽종소리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서로 환대하고 기뻐하며, 늘 성령의 열정이 넘치는 제단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한다.





중등부 워십팀 키리에, 대상 수상



송희원
(중등부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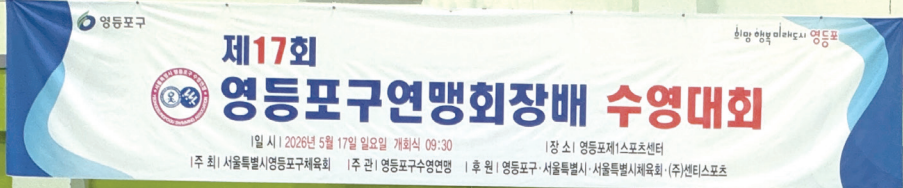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찬양경연대회가 지난 5월 30일(토) 시흥교회에서 있었다. 쟁쟁한 실력이 있는 팀이 많았는데 우리 영은교회 중등부 워십팀 ‘키리에’가 워십 부문 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뻐했다. 동시에 지난 연습 시간과 과정이 떠오르며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나기도 했다.

내가 처음으로 워십대회에 참가했던 것은 중등부 1학년 때였다. 그 당시 서투르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바람에 어색하게 무대에 섰다가 내려온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1년 뒤, 새로운 팀원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키리에(Kύριε/ Kyrie, 고대 그리스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름으로 워십팀을 만들고 다시 차근차근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다. 우리는 춤을 완벽하게 잘 추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팀원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연습에 임했다.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거나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기에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의 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업과 시험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팀원과 선생님이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 같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대회에 출전했고 작년 금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수상했다. 키리에 워십팀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우리 팀원들을 성장시키고 팀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회에 나가 막상 춤을 너무 잘 추는 다른 팀들을 보면 기가 죽고 긴장된다. 하지만 우리는 무대에 올라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고 내려오자”라며 다짐한다.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도 키리에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온 맘 다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키리에! 키리에! 파이팅!”



영등포구연맹회장배 수영대회에 참여한 영은로이 수영반

토요학교 영은로이 수영반 대회 수상

윤흥식 안수집사 (수영반 감독)

토요학교 영은로이 수영반은 53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인이거나 교인의 자녀가 아닌 인근 지역 학생 20여 명도 참여하여 매월 2회 수업을 듣습니다. 영은로이 수영반은 영등포구수영연맹 관내 클럽으로 지정되어 매년 두 차례 영등포대회와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등포구연맹회장배 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를, 고양전국대회에서는 동메달 2개를 수상했습니다. 영은로이 수영반은 지역 학생들이 강습을 받으며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석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를 계기로 따뜻하고 감사한 공간이 된 교회

고미정 (영문초등학교강보영&강지원엄마)

수영 코치님에게 영은교회 토요학교 수영반을 소개받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영은로이 수영반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토요학교 수영반 수업 시간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수영을 해왔지만, 수

영대회에 출전해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감독님과 코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새로운 도전 속에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대회에서 상까지 받으며 아이가 느꼈던 기쁨과 성취감은 부모인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아이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수영 연습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은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대회를 계기로 우리 가족은 교회라는 공간을 이전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응원해 주는 감사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전국마스터즈대회에 출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게도 교회는 더 이상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정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를 통해 시작된 작은 인연이었지만, 영은교회와 토요일 수영반 안에서 받은 관심과 진심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과 도전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는 영은로이 수영반



김윤지
(문래초5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김윤지(고양 전국대회 평영 50m 동메달)입니다. 저는 먼저 영

은로이 수영반에 다니고 있던 친구의 추천으로 수영반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직접 다녀 보니 정말 즐겁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영은로이 수영반에서는 수영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수영장에 가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지도해 주셔서 수영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영은로이 수영반에는 수영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회에 나가는 것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며,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땀습니다. 메달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은로이 수영반에 다니면서 수영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도전하는 마음도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며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능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고친다”

영은집수리봉사단, 3호 사역 성공적 마무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어로 삼은 영은집수리봉사단(YEIH)이 지난 5월 30일, 선유서로의 한 반 지하 빌라에서 제3호 집수리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사역은 2년 전 수해로 침수되어 오염과 해충 문제가 심각했던 80대 중반의 은퇴 장로·권사 노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 17명의 봉사단원은 안방 천장 석고보드 교체, 전면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는 물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세척하며 온종일 땀방울을 흘렸다. 특히 이번 사역에는 교회에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성도들이 많이 참여했다. 아래는 최근 몇 년 사이 교회에 등록하고 집수리 봉사에 동참한 성도들의 생생한 소감이다.

김창원 기자

사랑을
작은 실천으로



임성희 성도
(360구역)

5월 30일, 집수리봉사단 3회차 사역에 봉사단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초신자로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했지만, 봉사의 마음을 품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 방문한 가정은 반지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시는 85세 노부부의 집이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집은 여러 곳이 낡고 불편한

상태였다. 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와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나 역시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함께 땀을 흘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납공간과 오랜 세월 쌓인 생활의 흔적들로 인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더위와 해충까지 더해져 육체적으로도 고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일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르신들께서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고, 정리되고 밝아진 집 안을 둘러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번 봉사를 통해 봉사는 받는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랑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느꼈다.

서로 협력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작은 실천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얼마 되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시작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성도가 되고 싶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김가희 성도
(322구역)

먼 길을 돌아 다시 교회로 돌아온 어린양으로서,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 그때 마침 집수리봉사단의 발

대 소식을 접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건축쟁이의 특기를 살려 호기롭게 지원했으나 직접 시공하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낙심하기도 했다. 나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양평동의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높여 나가려고 한다.

감사함과 뿌듯함



황대현 집사
(644구역)

집수리봉사단 모집 소식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신청했다. 막상 발대식에 가보니 다들 도배며 장판이며 분야별로 능력자가 참 많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도움이 될까 걱정을 많이 했다. 내가 정말 봉사단을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다.

오전에 철거 작업을 하며 너무 힘들어서 ‘오후는 어떻게 버티나’ 생각도 들고, 끝나고 나서 몸이 아파 앓아눕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땀 흘리며 집 한 채를 깨끗하게 고치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다. 내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전해졌기를 소망한다.



주바라기(김혜지, 정윤희, 곽채린, 석지영) 파송예배를 마치고

유스비전 31기 '주바라기' 파송예배

김혜지 (주바라기 팀장)

지난 6월 14일, 세미나 1실에서 유스비전 31기 '주바라기' 파송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 1부 진윤규 목사님과 청년부 부장 김철수 장로님, 유스비전 후원회 총무 김명희 권사님과 많은 유스비전 선배들 그리고 기도 후원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파송예배를 통해 주바라기팀은 28일의 유럽 여행(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28일을 보내도록 다짐했습니다.

진윤규 목사님께서 “길 위에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행 가서 여러 일을 겪으며 가장 많이 할 말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라는 것이겠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오히려 더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더욱 주님을 찾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유스비전 31기의 유럽 비전 여행을 위해 올해도 수많은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31년간 오롯이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155명의 유스비전 청년이 한 달간 유럽 땅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스비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유스비전 여행을 위해 든든한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한국 땅에 돌아와서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스비전 31기 **주바라기** 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28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2.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3.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4. 유럽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후원

- ① 국민 752601-04-257247 예금주: 김명희 (유스비전)
- ② 교회 목적 헌금

문의: 김명희 권사 (010-9166-6809)

네이버카페 '영은 유스비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이우진·서보경 선교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살롬! 캄보디아의 모든 영혼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동역자이신 교회와 교우님들에게 축써참빛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1. 피난민들의 고향 복귀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의 전쟁이 임시 휴전으로 총성이 일단 멈추었습니다. 축써참빛교회 인근 난민촌에 머물던 피난민들은 불안해하다가, 1월 말부터 귀향을 시작해 2월 말쯤 거의 돌아왔습니다. 그중 남편이 피난민 촌에서 지병으로 별세하여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교회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른 후 전도되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물심양면 지원 속에 이들은 3월 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한 가정이었지만 피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미용 봉사 재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미용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이 없는 축써마을 주민들과 교인들을 위해 무료로 매달 두 번째 주일에 이·미용 봉사를 진행합니다. 봉사팀은 시엠립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국인 집사님과 직원들로,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합니다. 차로 한 시간 거리이지만 시골로 소풍을 오는 기분이라며 보람을 느끼는 이들의 섬김이 참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시엠립 뉴페이스미용실 팀의 섬김에 주님의 복과 안전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3. 타이랏따와 스레이싼의 고향 교회 방문

캄보디아 최대 명절인 ‘쫄츠남(설날)’을 맞이하여 반가운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축서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타이랏따와 스레이싼이 고향을 방문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타이랏따는 4년 전 15살에 결혼하여 프놈펜으로 취업했고, 스레이싼도 고등학교를 중퇴 후 프놈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난 것이 안타까웠지만, 교회를 잊지 않고 찾아와 선교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잃기 쉬운 캄보디아 환경에서, 이들의 방문은 사역의 보람이자 큰 위로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1.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도록
2. 축서참빛교회 교회학교, 유치원, 방과후 교실, 청장년부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3. 전도사 티어릿, 교사 판과 째뜨라이, 경비 트은이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4. 선교사 부부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스레이싼과 함께



타이랏따 가정

복음의 문을 여는 전도 길잡이



김민식 목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기에 전도는 선택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이에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지침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전도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시작된다.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열어 주신다.

둘째, 먼저 관계를 쌓아보자. 사람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전도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은 관심이 관계를 만들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는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셋째, 초대와 기회를 만들자. 모든 성도가 메시

지를 전할 수는 없지만, 초대는 할 수 있다. 주일예배나 소그룹 모임, 교회 행사에 자연스럽게 초대해 보자. “함께 가보실래요?”라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초대는 우리의 몫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넷째,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라고 말한다. 편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읽혀질 때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교회보다 먼저 성도를 만나고, 성경을 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읽는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편지의 삶을 살아보자. 전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사역이 아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용기 있게 초대하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스도인의 투자 지혜



장호선 안수집사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금융과 투자 환경 속에 사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 준다. 신앙인은 세상을 무조건 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 환경과 금융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할 것인가 역시 삶의 중요한 과제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피와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수혜 대상이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에이엠디(AMD), 브로드컴(Broadcom), 티에스엠씨(TSMC) 등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성장에 힘입어 큰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169% 상승하며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 역시 1년 동안 130%를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보장은 없다.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최근에도 금리와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로 큰 변동성을 경험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투자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립식 투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가치투자**는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법이다. 단기적인 유행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실적이 중요하다.

배당투자는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이다. 은퇴 준비나 장기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분산투자**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자산을 집중하지 않고 국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함께 투자하는 것도 좋은 분산투자의 예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은 단순한 저축만으로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투기와 과도한 욕심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계획하고, 분산하여 투자하며, 책임 있게 투자하는 것 자체는 건강한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결국 투자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절제 그리고 지혜다. 신앙인 역시 현실 경제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금융과 경제를 배우고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처럼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 영은교회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영아부	7월 11일(토)-12일(주)	영아부실	중등부	8월 2일(주)-5일(수)	가평 그린캠프유스호스텔
유아부	7월 4일(토)-5일(주)	유아부실	고등부	7월 26일(주)-29일(수)	오륜비전빌리지
유치부	7월 11일(토)-12일(주)	유치부실	청년부	7월 16일(목)-18일(토)	천안동부교회
유년부	7월 24일(금)-26일(주)	유년부실	청년1부	8월 9일(주)-11일(화)	인천 신덕수양관
초등부	7월 24일(금)-26일(주)	초등부실	청년2부	8월 13일(목)-15일(토)	철원 담터수양관
소년부	8월 2일(주)-5일(수)	가평 그린캠프유스호스텔	아동부 찬양학교	8월 8일(토)	유년부실, 소년부실
꿈자람부	7월 23일(목)-8월 8일(토)	가정 심방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 허남기
 담임목사 | 이승구
 부목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도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영은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61 / 02-2676-7171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분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직장인예배	오전 11:40		
모임 시간 안내	젊은세대 더누림	오후 3:00	7층 친교1실
	젊은부부 어울림 1부	오후 12:10	1층 어린이집
	젊은부부 어울림 2부	오후 3:00	2층 세미나1실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5개월-3세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4-5세		2층 유아부실
유치부	6-7세		2층 유치부실
유년부	초등 1-2학년		5층 유년부실
초등부	초등 3-4학년	오전 11:00	5층 초등부실
소년부	초등 5-6학년		5층 소년부실
꿈자람부	4-13세	오후 1:30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3층 비전홀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	